

인천항 새해 바닷길 활짝... 하늘길과 시너지 기대

크루즈·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 항공편 연계 등 관광상품 개발 항만 물동량 325만TEU 목표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 개장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크루즈터미널은 내부 공사 등 마무리 작업을 거쳐 내년 4월께 개장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 해 7000만명이 이용하는 세계적인 국제공항을 갖춘 인천의 바닷길이 올해 더 넓어진다.

인천항만공사는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국제도시 9공구에 지난해 말 준공한 국내 최대 크루즈 전용 터미널을 오는 4월 말 정식 개장한다.

크루즈터미널은 지상 2층, 연면적 7364㎡ 규모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22만500-t급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는 길이 430m 부두를 갖췄다.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한 번에 5000~6000명의 관광객이 탈 수 있는 초대형 크루즈선이 기항하는 전용부두가 생긴 것이어서 국내 해양관광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 크루즈 전용부두는 부산 북항(22만t급), 서귀포 강정항(15만t급), 제주항(15만t급), 속초항(10만t급) 등지에

있다. 인천 크루즈터미널은 개장 첫해인 올해 모두 22척의 크루즈선이 입항해 5만명의 관광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크루즈터미널 바로 옆에 건설 중인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도 올해 하반기 준공된다.

신국제여객터미널은 지상 5층, 전체 넓이 6만7000㎡ 규모로 축구장 9개 넓이보다 크다.

현재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연면

적 2만5587㎡)과 제2국제여객터미널(연면적 1만1256㎡)을 합친 면적의 1.8배에 이른다.

이곳에서는 인천과 중국 텐진, 칭다오, 옌타이, 다롄, 단둥 등지를 연결하는 10개 항로 한중 카페리가 정기 운항한다.

인천~중국 10개 항로 카페리 여객수는 2016년 92만명에 달했다가 '사드 갈등'이 불거진 2017년에 60만명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80만명으로 회복됐다.

올해 해양관광여객 195만명 유치를 목

표로 정한 인천항만공사는 여객수 세계 7위의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하면 하늘길과 바닷길을 통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중국 카페리의 경우 아직 항공편이 취항하지 않는 중국 동북부 도시에 도 운항하고 있어 다양한 여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항만공사는 국제여행의 패턴이 '깃발 관광'으로 상징되는 단체관광객 비중이 줄고 가족, 친구, 연인 등이 삼삼오

오 모여 한류의 본고장을 찾는 개별관광객이 빠르게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양관광이 가능한 배편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항공편을 연계한 상품들이 개발되면 항만과 공항 모두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컨테이너 물동량 300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를 돌파한 인천항은 송도국제도시 10공구에 있는 신항을 중심으로 글로벌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걸음을 본격화한다.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 312만TEU(잠정집계)보다 4.2% 늘어난 325만TEU를 올해 달성하기 위해 하역장비를 추가 도입하고 물류 흐름을 개선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올해는 인천항의 물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글로벌 항만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올러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과 적극적인 여객 유치 노력을 통해 인천항을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metroseoul.co.kr

'韓관광 100선'에 꼽힌 부산 명소는?

태종대·해운대 등 6곳 뽑혀

부산의 대표 관광지인 태종대와 해운대해수욕장 등 6곳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부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선정한 우리나라 대표 관광명소 '한국관광 100선'에서 부산에서는 태종대와 감천문화마을, 송도해수욕장과 해운대해수욕장, 자갈치시장, 마린시티 등 6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6곳 중 '태종대'는 지난 2013년 이후 '한국관광 100선'에 네 번째 선정돼 부산을 대표하는 명승지로서 명성



태종대 등대전망대. /부산시

을 드높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100선을 2년에 한번씩 선정해 발표해 왔으며, 이번이 4회째다. /부산=최인택 기자 remark@

광주 택시기본료 500원 ↑... 10일부터 3300원

광주시는 오는 10일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인상안은 중형택시(8163대)의 경우 기본요금(2km)을 현재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한다.

거리·시간 요금은 134m·32초당 100원(기존 145m·35초당 100원)으로 총 13.86% 오른다.

모범·대형택시(9대)는 기본요금 3200원에서 3900원으로 인상된다.

156m·36초당 100원(기존 172m·41초당 100원)으로 14.53% 오르는 셈이다.

시는 택시조합의 인상 요구를 받고 시의회, 시민, 관련 단체 등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달 17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인상안을 심의·확정했다. /광주=봉태영 기자

오늘의 날씨

1월 2일(수)
음력: 11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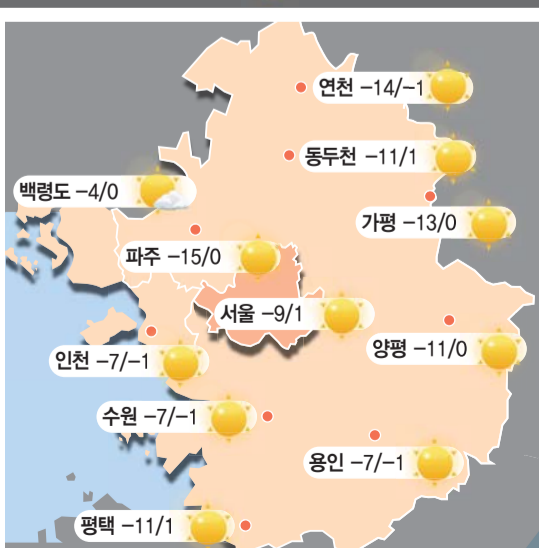
수도권 날씨
-9~1℃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전남, '제로페이' 도입... 소상공인 수수료 0%대

(카드)

연매출 8억 이하 0%... 최대 0.5% 가맹점·이용자 확대 위한 홍보 총력

전라남도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019년부터 전남 전역에 '제로페이'(Zero Pay)를 시행, 카드 수수료 부담 없는 경영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인 '제로페이'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신용카드 수수료를 없애기 위해 도입했다.

소비자의 스마트폰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하고 구매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구매대금이 즉시 이체되는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제로페이가 시행되면 중간에서 은행과 결제 플랫폼으로 지불했던 결제수수료가 연매출 구간별로 감면돼 0%대에 가까운 수수료가 적용된다.

현행 수수료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사업자 0.8%, 5억 원 이하 중소사업자 1.3%, 10억 원 이하 2.1%다. 반면 제로페이 수수료는 연매출 8억 원 이하 0%, 12억 원 이하 0.3%, 12억 원 초과 0.5% 이내다.

전라남도는 제로페이 도입을 위해 지난해 7월 중소기업기업부, 서울시와 함께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도입 협약을 체결하고, 결제표준 제정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관 협업 TF(29개 기관·업체)팀을 운영해왔다.

또한 가맹점 확보와 이용자 확대가 제로페이 성공 관건인 만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신용카드의 각종 해

택과 경쟁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제로페이 서포터즈와 도민 명예기자단을 활용해 도내 소상공인 13만 사업체 중 2019년 50%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2020년 80%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제로페이 조기 정착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 개발과 도민 홍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신남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비용은 줄이고 매출은 높이는 투트랙 전략의 하나로 제로페이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연구용역 중인 '전남 새천년상품권' 발행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맹점 가입 신청과 제로페이에 대한 상세 정보는 제로페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주=봉태영 기자 bcy2020@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지원 센터 전남 화순 설립... 213억원 투입

국가 백신 사업의 핵심 인프라인 '국가 백신 제품화 기술지원센터'가 전남 화순에 들어선다.

전라남도는 국가 백신 제품화 기술지원센터를 화순에 유치하는 데 성공해 내년 정부 예산에 1차연도 사업비 11억 3천3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백신 지원센터 설립에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213억 원이 투입된다.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백신 기초연구부터 임상·허가·승인까지 모든 주기에 대한 기술자문을 하고 신속한 백신 제품화와 수출을 지원한다.

백신 지원센터 설립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정적 백신 공급도 가능하게 됐다. 2030년까지 백신 완전자급을 실현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한층 탄력을 받고, 제약기업의 화순 백신 특구 입주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했다.

/전남 무안=양수영 기자 ysn6313@

광주, 2018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1위

지난해 광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교통안전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5명으로 2017년 117명에 비해 36% 감소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 6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명도 없었다.

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사망률도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시는 자치구, 경찰청, 교육청 등 11개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협업팀을 구성해 사고 정보 공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캠페인·교육 등을 함께 추진한 것이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협업팀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노란색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힘썼다.

교통안전 지킴이가 통학로가 같은 학생들을 집 인근까지 인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했다.

또 단속용 CCTV를 추가로 설치했으며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등·하굣길 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무단횡단 사고 다발지역 17곳에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를 설치하고 최근 6년간 무단횡단 사고 다발지역을 표시한 '교통안전 마을 지도'를 제작해 관내 주민센터에 배부했다.

령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령자 통행이 잦은 양동시장, 말바우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횡단보도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노인보호구역 확대했으며 기관별로 실시해 효과가 낮았던 고령자 교통안전교육도 통합 실시했다.

운전자에게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교통표지판과 도로표지판을 개선했다.

/광주=봉태영 기자